

페르세폴리스, 상상 속의 도시

The city of Persepolis in my imagination

글. 정영호 Jung Younghyo · 시인

여기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10월 말인데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겨우 흥정해서 탄 택시에는 알제리 친구 한 명과 슬로베니아 친구 두 명이 나와 동승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이란 파르스(Fars)에 위치한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하루 전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는 택시비를 아껴보려고, 이방인으로서의 두려움을 조금 가라앉히려 한 대의 택시에 몸을 실었다. 이란에 가면 꼭 페르세폴리스는 가보라는 말은 나는 몇 번이나 들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 도시였던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유래한 파르스에 있었고, 파르스로 가기 위해선 그곳을 잘 아는 택시가 필요했다. 한 시간 남짓 사막과 사막 위에 자리한 도시를 지나는 동안 이곳에 2,500년 전의 유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는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택시에 내리자마자 우뚝 솟은 높은 기둥들을 마주했다. 그것들은 사라진 지붕 대신 이제는 새파란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기둥의 규모만으로 페르세폴리스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도시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됐는지 짐작이 갔다. 아주 오래 전엔 이곳에 수로가 흐르고 정원에 나무들도 무성했겠지. 지금은 황량한 사막 속에 있지만 페르세폴리스는 한때 세계의 중심지였음을 상징해주는 건축물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이들이 페르세폴리스에 모여 있었다.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페르세폴리스는 여전히 위용을 뽐냈다. 전통복장을 입고 방문한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온갖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기



페르세폴리스의 상징으로 자리한 '만국의 문'



페르세폴리스의 전경. 여전히 복원이 진행 중이다.

등과 벽. 몇 천 년 동안 무수한 발자국을 건디면서 더욱 단단해진 바닷. 페르세폴리스는 조금씩 과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는 여전히 복원이 진행 중이다. 곳곳에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기둥과 주춧돌이 많았고, 작은 흔적까지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해놓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계속 모이면 언젠가 페르세폴리스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페르세폴리스의 '만국의 문'으로 들어갔다. 국가의 공식행사가 열릴 때 외국 방문객이 드나들던 문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문 속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며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벽이 사라지고 입구만 남은 만국의 문은 여전히 페르시아 역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알제리에서 온 친구도, 슬로베니아에서 온 친구도, 한국에서 온 나도 천천히 만국의 문을 지나면서 페르세폴리스의 손님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지금도 쉽게 올 수 없는 곳을 2,500년 전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앞뒤가 훤히 드러났으나 어찌면 만국의 문은 자신만 알고 자신만 견뎌온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입구를 숨기고 있는지 모른다.

페르세폴리스를 오랫동안 감상하고 택시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이런 곳에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기둥에 섬세한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어떻게 벽을 쌓아 올렸는지 짐작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에 갇힌 채 멀리 보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페르세폴리스가 증명하는 건 아닐까? 멀리 보이는 파르스의 땅이 한없이 넓게 느껴졌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의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둥들

